

# ★드림레터 10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25** 호 실패를 넘어 도전하기



## 실수와 실패의 가르침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실수의 책>의 저자이면서 리더십 전문가인 스킵 프리처드는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실수**를 삶에 지쳐 아무런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던 주인공 데이비드의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데이비드는 아홉 명의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아홉 가지의 실수를 배웁니다.

*"지식은 요란한 소리로 전달되지만, 지혜는 오직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옛 것을 비워낸 자리가 필요하지.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자리가 생기지 않을 걸세."*

데이비드가 배운 아홉 가지 실수 중에는 '단 한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빨리 도전하여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꾼 '실수 선배'의 경험을 통해 데이비드는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됩니다.

### 인생에서 흔히 범하는 아홉 가지 실수와 그 실수로부터의 가르침

- 타인이 정한대로 사는 것 — 타인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산다.
- '부당한 꼬리표'에 순응하는 것 — 자신에게 내재된 가치를 스스로 알아본다.
- 주변에서 변명할 거리를 찾는 것 — 변명하지 않는다.
- 불평만 하는 것 —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 —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을 벗어나 모험을 한다.
-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 난관에 부딪혀도 결단력과 목적의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
- 무관함 속에 빠지는 것 — 남보다 두드러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 스스로 마음에 그린 한계선 — 자신의 성공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을 알고 대담하게 행동한다.
-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는 믿음 — 시간의 절박함을 느끼며 목표를 추구한다.

데이비드가 만난 '실수 선배'들 중 하나는 생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라고 가르쳐줍니다. 마음에 사랑과 평온을 주는 것이죠. 감사는 절망한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에 태워 고통 위로 날아올라, 사람들을 윤택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출처 : 스킵 프리처드(2018), 「실수의 책」)

## 진로교육 Tip 실패를 뛰어넘는 힘, 창의성

창의성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발견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창의성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1. 창의성의 시작은 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이면 무조건 거기에서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2. 창의성을 혼합하세요.  
정보와 상상력을 더하면 새로운 창의적 결과물이 나옵니다.
3. 창의성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내 안에서 섞고 변형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출처 : 장은영(2018), 「창의성이 뭐길래?」)

### 자녀의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애덤 그랜트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창의성과 자녀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습니다.

###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길러지는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항상 천성과 양육의 양면이 모두 있다고 봅니다. 유전적으로, 혹은 조기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 보다 독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거나 전자 제품의 회로처럼 내장된 것은 아닙니다."

### ▶학생들의 창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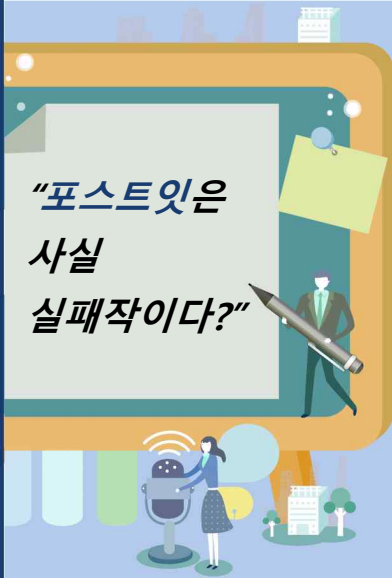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든 학생이 팀을 이뤄 발표하게 합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물론 각 팀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랄만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 ▶자녀의 생활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거나 숙제를 하는 시간 등 일과에 대해 부모가 일일이 정해주기 보다 자녀에게 맡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관리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규칙을 줄여 창의성이 자랄 공간을 열어주세요.

(출처 : 한국경제, 2016.02,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찾는다? 창의성 죽이는 지름길")

자동차, 카메라, 전구, TV, 전화 등 현대의 중요한 발명품들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난 산물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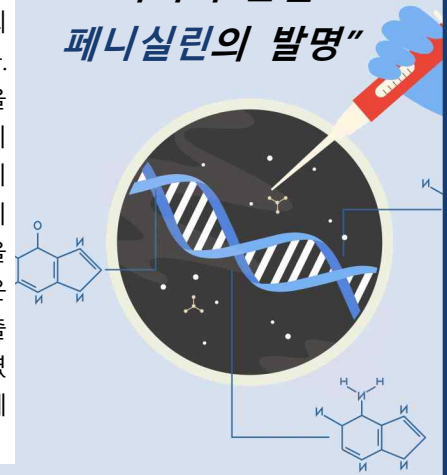


1973년,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다 자신이 책 사이에 꽂아둔 책갈피가 떨어져 허둥졌던 경험을 토대로 광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화학자 아트 프라이는 동료 스펜서 실버와 함께 회사에서 개발하던 접착제를 이용해 접착식 책갈피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이 띠의 일부에 접착제를 발라 붙는 부분이 책 안쪽에 붙게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은 끈적이지 않게 만들었죠. 하지만 회사는 이 발명품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책갈피를 소비자들이 싫어하지도 않았고, 이 새로운 책갈피를 판매하는 것이 큰 매출을 올리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버와 프라이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신제품을 내놓았고, 회사 동료들은 이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를 책갈피가 아닌 메모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반응이 꽤 좋아지자, 실버와 프라이는 상사를 설득하기 위해 샘플을 한 지역에 배포하고 실제 인기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으며, 1980년 마침내 엄청난 신제품이 미국 시장에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어디에 가나 이 접착 메모지를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조 개 이상 판매되었답니다.

(출처 : 프랭크 파르노이(2013), 「속도의 배신」)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키울 때는 뚜껑이 있는 얇고 둥근 ‘페트리 디쉬’라고 부르는 유리 접시에 ‘배지’라는 영양분을 넣고 배양합니다. 뚜껑을 열고 배지 표면에 미생물을 바르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죠.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상구균을 배양시켜놓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이 키우던 미생물 배지가 푸른곰팡이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죠. 이럴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오염된 배지를 모두 폐기 처분했지만, 플레밍은 이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상구균이 곰팡이 주변에서는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 곁에선 세균이 아예 녹아버리는 ‘무균 상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플레밍은 이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항균작용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배양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푸른곰팡이에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추출하였고, 그 새로운 물질의 이름을 곰팡이의 학명을 따서 ‘페니실린’이라고 붙였습니다. 페니실린의 개발로 그전까지 치료할 수 없었던 폐렴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 “기적의 물질 페니실린의 발명”



(출처 : 중앙일보 2016.06., 세균실험 중 페니실린 발견, 인류에 ‘항생제’ 선물)

## WEEKLY NEWS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매주 팟캐스트(iOS)&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최신편 들어보기▶



### <특독!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lp@naver.com>